

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, 폭염 대비 무더위 예방물품 전달

✎ 김철희 기자 | ⓒ 승인 2026.08.10 17:02



무더위 예방물품 전달. 사진=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 제공

[구미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는 10일 지역 농업인단체 등에 무더위 예방물품을 전달했다.

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현장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.

모자와 쿨토시 등으로 농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성했다.

나창식 지사장은 "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

김철희 기자 chk1500@naver.com

저작권자 ©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